



Incruit

사람에게는 업(業)을, 기업에게는 인재를 주선하는 '일과 사람의 포털' 사이트가 있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개설해 국내 취업시장의 판도를 재편한 인크루트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동종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취업·인사 전문기업으로써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경쟁보다는 협력의 전략을, 속도보다는 정도의 경영을 강조하는 이광석 대표에게 인크루트의 글로벌 전략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온라인 채용 문화의
글로벌 패러다임을 이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



○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터넷 채용 정보업체들의 경쟁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모니터 너머로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채용 공고와 이력서가 오가는 온라인 취업시장은 치열한 완전경쟁의 시장이다.

300여 개에 달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가운데, 창립 8주년을 맞은 인크루트의 독보적인 위치는 비단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력 알선에 불과했던 기존의 취업시장의 판도를 뒤바꾼 인크루트는 온라인 채용시장의 문화와 흐름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발업체로서 매순간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지하며 그 흐름에 맞춰 HR(Human Resource, 인적자원)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경쟁에 쫓기지 않는 정도를 고수하는 인크루트는 구직자들의 입맛에 맞는 편리한 콘텐츠들을 적시에 배양해낸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구인 광고와 이력서 DB 검색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매년 6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나오고 있다.

‘신뢰’를 매개로 인재와 기업을 주선

경영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책 웰치 전 GE 회장은 성공의 비결로 '사람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꼽았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자본도 필요하고 기술력도 좋아야겠지만, 인재 없이는 성공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이유에서다.

"1998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한파로 일자리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죠. 그때 한 친구의 아이디어로 기업의 채용 정보를 한데 모아 인재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인크루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광석 대표는 직접 개발한 국내 최초의 검색엔진 'ZIP!' 과 구인구직 정보를 연결하는 것으로 인크루트의 기본 콘셉트를 잡았다. 구직자는 채용공고와 기업정보를, 기업은 구직자의 이력서를 직접 검색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와 지리의 격차를 단번에 해소해 버린 것이다.

사회적 정서와 채용문화, 방대한 양의 개인 및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는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이력서와 기업의 정보가 오가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공유하려면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정보의 보안과 철저한 관리야말로 인크루트가 최선을 다해 지켜온 부분이지요. 앞으로도 온라인 정보보호시스템 투자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주는 '신뢰기업대상'을 인크루트가 2년 연속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채용 정보로서 실업난 해소에 일조하려는 이대표의 사회적 사명감과 고객 신뢰의 경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HR 미디어 그룹으로 선진포고

최근 들어 해외취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던 채용 정보의 영역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2000년 과감하게 유료화를 단행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해온 인크루트 역시 코스닥에 상장된 컨설팅 전문기업인 뉴스프테크놀을 인수하고 세계적인 HR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출항의 닻을 올렸다.

"미국 최대의 인사 컨설팅 기업·구직 사이트들과의 제휴를 통해 선진국의 인사 관리 노하우를 배우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폭 넓은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들 또한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채용공고를 통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으니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이대표는 젊은 기업가들의 국제 모임인 EOC(Entrepreneurs Organization)에 적극 참가하는 등 해외의 젊은 CEO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영 관련 정보와 세미나, 사업 교류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채용 문화의 글로벌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세계적인 HR 미디어 그룹으로 키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이광석 대표. 앞으로는 정부와 함께 공공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업체와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전략으로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워내고 싶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취업과 인사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HR 기업으로 큰 걸음을 내딛은 인크루트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 본다.

Attention!

인크루트의 믿음직한 서비스 多 모였다

1. 인크루트닷컴 www.incruit.com

인크루트의 사업영역은 크게 온라인채용서비스, e-Resourcing 서비스, 대학 및 지역 HR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 초기부터 인크루트는 인크루트닷컴을 통해 구직 개인회원에게 온라인 이력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회원에게는 구인 광고 게재 및 이력서 DB를 검색할 수 있는 이력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채용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채용서비스는 채용 기획 단계부터 합격자 발표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준다. 또 대학생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알바팅 www.albating.com

알바팅은 단기직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사이트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아르바이트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앞으로 신속한 구인구직 정보 전달이 관건인 아르바이트 시장의 특성을 감안, 모바일을 이용해 한층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스피드매칭' 서비스는 맞춤형 모바일 채용 서비스로 개인이 취업 희망 조건을 인크루트에 등록해 놓으면 원하는 채용정보를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고용인은 회사로 방문한 채용코드의 PDA에 채용 조건과 내용을 입력하면 채용 공고 등록과 동시에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3. 예스폼 www.yesform.com

작년 말 인크루트는 기업금융연구원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 예스폼을 인수했다. 문서·서식 포털사이트인 예스폼은 회사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문서자료와 일반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률 서식, 교육서식 등을 종합DB로 구축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도 기업금융연구원의 경영컨설팅 전문경험과 인크루트의 취업 및 HR콘텐츠, 자본력을 결합해 예스폼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보다 향상된 문서서식 정보와 HR 및 BIZ 콘텐츠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 '오픈 샬러리' www.opensalary.com

직종과 경력 그리고 기업에 따른 기본 연봉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별 연봉 정보와 각 분야별 최고 연봉 TOP 10 등 종합적인 연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학별 연봉 검색 서비스는 구직자들의 연봉 정보를 출신학교별로 검색할 수 있어 구직자들은 유사 학력 및 전공자들의 연봉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과 경력에 따라 연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짚어볼 수 있다.



5. '누구' www.nugu.com

직장인 및 구직자들의 인맥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인크루트는 온라인으로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명함 및 누구' 서비스를 내놨다. '명함'은 보통 사람들이 주고받는 명함을 온라인화 한 것으로 자신의 출신학교, 사진, 약력 등을 등록해 공개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누구' 서비스를 통해 직종, 학교, 지역, 잘하는 것 등의 조건을 통해 명함을 검색, 인맥을 추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6. 인크루트 '취업상품권' gift.incruit.com

인크루트가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구직자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만원, 3만원, 5만원권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사용은 물론 주위의 구직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인크루트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기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7. '인재경영' 잡지 hr.incruit.com



인사 전문 잡지인 인재경영은 인재선발에서부터 인재관리, 인재교육 및 개발, 인재활용, 퇴직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사와 관련된 전 부문을 심도 있게 다룬 인사 전문잡지로 인크루트의 경력개발연구소에서 발행한다. HR분야 연구원 학계, 기업 인사전문가 등이 대거 편집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기존 인사 잡지보다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등 차별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MINI INTERVIEW

궁금하다! 인크루트 브레인

인간적인 채용의 장을 여는, 인크루트사업부 김규용 부장



Q: 인크루트사업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A: 인크루트닷컴 사이트를 통괄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한다. 인크루트 사업의 중심적인 취업과 채용 부분의 아이템을 기획·운영·마케팅하며 영업까지 총괄하고 있다. 처음 인크루트가 만들어진 사업의 핵심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부 내에 영업팀과 개발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사이트를 운

영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다

Q: 요즘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A: '누구'라는 온라인 인맥 서비스이다. 실제로 경력 채용의 70% 정도가 인맥을 통해 채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이 인맥 분야는 향후 잠재력이 기대되는 서비스다. '누구'는 장차 온라인상의 네트워킹을 오프라인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또 기존의 인크루트의 채용 서비스가 인맥 관리 서비스와 연계가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써 우리 사업 자체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인맥 쪽을 도약의 엔진으로 삼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Q: 아이디어를 내는 비결은 무엇인가?

A: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워크숍을 기획한다. 회사에서는 당장 시급한 현안에 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서울 시내 경치 좋은 곳에 방을 잡고 하룻밤을 꼬박 새워 개발 아이디어를 낸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가공해 도출해내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다소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런 것들이 기획이나 개발,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

Q: 취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A: 1999년 입사해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과 기업을 잇는 인크루트의 업무 자체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